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금식기도가 추해질 때

(마 6:16-18)

When a Fasting Prayer is Disgraceful

(Matt. 6:16-18)

금식기도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금식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 적어도 70번 이상 금식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 fasting prayer is really beneficial for us. A fasting prayer for our own spirituality, the spiritual revival of each church, and the nation and its people's revival is our inheritance in the grace we have received. That's why the Bible oft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fasting prayer, and speaks of fasting prayers more than seventy times. Having started His public life, Jesus fasted and prayed for forty days.

However, Jesus tells us that we must be careful when we fast and pray. If we don't follow His word, the fasting prayer could be very disgraceful.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기도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금식기도는 매우 추해질 수 있습니다.

1. 금식할 때 외식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모습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6절).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므로 금식기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알리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금식이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하며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될 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1. Don't take the behavior of hypocrites in fasting

Jesus warns us not to take the behavior of hypocrites and those who disfigure their faces to men when fasting (v. 16). Those kinds of people want to boast of their fasting prayer by looking distraught to win praise and respect.

However, a fasting prayer must be done with the heart of longing to lie face down before God. Instead of worrying about people who know what we are doing, we must earnestly pray and entreat to God in secret. Nevertheless, some people openly fast and pray to God in order that they may show their false prayers to people. Thus, their fast and prayer in this way is contemptible before God, and it never makes God pleased.

2. 금식할 때 내면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취하지 말라

금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사 58:3-5).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함입니다. 금식함으로 고통스러워지는 육신과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일삼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저주하고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품는다면 금식은 가증스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위선자의 모습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내면적인 위선자의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2. Don't take the internal behavior of hypocrites when you fast and pray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of fasting is for us to humble ourselves (Is. 58:3-5). Because our life is overly weighted toward our flesh, and wanting to follow this world, we must fast and pray in order to thrust temptation away. By finding how our body and mind suffer great loss while fasting and praying, we earnestly seek to see God's kingdom.

Yet, no matter how much you say you fast, if you don't focus entirely on God and set your heart on pleasing Him, your fasting could be for nothing.

There are some who can hate and even fight others while they say they are fasting. If they pretend outwardly to be divine but inwardly hate others, talk in whispers, curse, and bear envy and wrath in their mind, their fasting should be contemptible to God.

If we deserve to outwardly thrust away the behavior of hypocrites, and we must also thoroughly thrust away the internal behavior of hypocrites, it is the fasting prayer in order to please God.

3. 금식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밝고 맑은 아침 하늘처럼 빛날 것이고, 병든 몸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전후 좌우를 호위하시고, 우리 기도예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사 58:6, 8-9).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와 대접입니다(사 58:7-10). 또한 허망한 말을 입으로 내지 말고 시기와 다툼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 We must receive God's evident response and blessing in fasting

If we are able to fast to please God, then our life will break forth like the clear and bright dawn, and our healing will quickly appear;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our guard in every direction; and the Lord will give us evident response (Is. 58:6, 8-9).

Taking a step forward, we should fast and do something which is helpful and receptive (Is. 58:7-10). The Bible says that when we keep ourselves from false words, stop being jealous, and do not fight, God's grace and blessing should reach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를 하시므로 우리의 삶이 물 댄 동산 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giving our fasting and praying to God to please Him, our life wi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and like a spring whose water never fails.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enjoy God's grace and blessing like a well-watered garden and spr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2 사명자대회

10월 7일(주)~11월 25일(주)(50일간)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발대식



2012년 10월 7일 ~ 11월 25일(50일간)



2012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1. 사명자대회를 통해 서울교회 모든 세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소서.
2. 온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 되게 하시고,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3. 토요 특별새벽기도회에 온 가족,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 뜨거운 기도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4. VIP 초대 새생명 축제에 모든 성도, 가정, 다락방, 부서가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5. 다음세대 부흥의 역사를 담은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012 사명자대회 일정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온가족새벽기도회																																
				Present 5 1단계				Present 5 2단계				Present 5 3단계				Present 5 4단계				Present 5 5단계				특별새벽기도회 (19~24일)																																
																				VIP초대																																				

전도교육 (프레젠티Present 5 운동)

10월10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 웨스트민스터 홀

2012년 사명자대회 기간 중 새생명 축제의 일환으로 10월10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 다락방장 공부시간에 "전도교육(프레젠티Present 5 운동)"을 실시한다. 여전도회원들은 전원 참석하여 교육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금요기도회 시간 변경

10월12일부터, 오후 8시 시작

지금까지 오후 8시20분에 시작되던 금요기도회가 오는 10월12일부터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사명자대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금요기도회를 20분 앞당기는 것이며, 교회 주변 학원들이 끝마치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늦어도 9시30분에 끝마칠 예정이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6]

(문 64) 신명기 22:5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까?

(답) : 여기서 '남자의 의복'이란 남자에게 속한(히브리어로 keli 즉 What pertains to ~에 속한 것) 의복이라 하지만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용기(그릇), 컨테이너의 뜻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구, 장비, 무기 또는 장신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뜻이 장식품이나 귀금속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의복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말한 simlah는 외투를 의미하지만 실은 몸을 가리는 모든 종류의 의류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두 성(性)의 외모나 역할을 서로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상대방을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며 품위를 지켜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남자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된 것을 감사할 때 자기의 옷을 입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 22:5에서는 성(性)이 다른 이의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행위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거나 성(性)을 오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식을 주도하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시간에 여자는 남복을 입고 남자는 여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법규를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전통의상인 킬트(Kilt) 같은 여성의 스커트 같은 옷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느슨한 치마와 같은 옷을 입는 일은 아주 싫어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과 제단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의 범위는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짓기만 매우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법 중 특별한 법은 단순한 의식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거나 또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법 조항에서 해방을 받은 것인지 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의복과 아담한 옷차림은 신약에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바울은 딤후 2:9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신자는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나아가 동성연애와 같은 성도덕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2 사명자대회

교회학교의 사명자대회

최치순 집사(사명자대회 교육분과)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추수의 계절에 나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나요? 이 물음에 우리는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기본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교회는 매년 교회설립 50일 전부터 기도와 전도에 오로지 전념하기 위해 사명자대회 기간을 갖습니다.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가 서울교회 되기 위한 전도운동이며,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헌신과 각오를 다짐하는 크리스찬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사명자대회 7주 동안 교회학교는 **매주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우리 교회학교가 출선하여 기도회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교역자 및 각 부서장이 중심이 되어 온 교회학교가 말씀 듣고 열열히 기도하며 새생명축제 기간에 적어도 1명 이상의 VIP(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초대할 수 있도록 전도교육과 전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금번 새생명축제에 리더인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 없이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환희에 찬 풍성한 사명자대회를 기대합니다.



2012 사명자대회

전도하자 513

주동재 집사(사명자대회 전도분과)

전도축제는 모든 다락방이 중심이 되어 다락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VIP(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새생명축제에 초대하여 등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VIP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옆집 가족 등 우리 주변의 이웃, 자주 가는 슈퍼아저씨 등 생활속에서 접하는 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친분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 직장동료 및 생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도목표는 모든 성도가 한 영혼 이상 구원하자는 뜻으로 VIP작정 5,000명, VIP교회 데려오기 1,000명, 결신자 300명, 이룸하여 **513운동**입니다.

전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특성에 맞게 하되 교회에서는 **Present 5 운동**을 제시합니다.

1단계 화분 방문(작은 선물로 관심 고취), 2단계 아이스크림 방문(친목강화), 3단계 퓨전 방문(친목 심화), 4단계 케익 방문(새생명 축제 초대), 5단계 보자기 방문(새생명 축제 참석확정)으로 10월 7일 사명자대회 시작과 함께 11월 16일 새생명축제에 초대하기까지 5단계로 나누어 VIP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락방 리더들을 통해 다락방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각 선교회, 전도회를 통해 내용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VIP초대 새생명축제**는 11월 16일(금)부터 18일(주일)까지 3일간 성대하게 열립니다.

16일(금) 낮시간에는 여자다락방과 전도회가 참여하는 **여성중심 집회**로, **17일(토)** 저녁시간에는 남자다락방과 선교회가 참여하는 **가족중심 집회**로, **18일(주일)** 1,2,3부에는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VIP들**이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찬양예배에는 VIP와 인도자 모두 모여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독려하기 위해 전도구호는 "우리는 사명자! 전도하자 513!", 주제 찬송은 505장(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으로 정하고 다락방, 선교(전도)회 등 각종 모임에서 꼭 제창하도록 권장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양만큼 맺습니다. 개인, 가족, 다락방이 모여 열심히 중보기도함으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대회가 되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기도

기도 우리의 사명

주님,
오래 전
너무도 깊은 상처로 인해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며
서울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1년 이란 세월이 흐르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2012 사명자 대회를 시작하며
21년 전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번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 성도가 적어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기도와 전도의 두 기둥이 분명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가을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영혼추수의 한 마당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응답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노철 목사



WEA · WCC Dialogue

세계기독교의 새로운 지평

우리교회에서는 오는 10월 22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시간에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WEA와 WCC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이어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열리게 된 WEA와 WCC는 어떤 기구인가?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10회 총회가 2014년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WEA는 128개국 복음주의 연맹들과 104개의 국제적기관이 가입된 조직이다. 요약하면 WEA는 자유주의 교회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의 연합체이다. WEA의 비전은 모든 나라를 제자 삼고 사회의 그리스도 중심적 변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WEA는 총회기간 중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는 한 마디로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체이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교회일

치운동)은 사회 문제에도 깊이 참여하는 신앙과 질서 운동이다.

“

세계의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의 복음에
입각해야

”

많은 이들이 WCC의 종교다원주의적 경향과 다양한 신학을 여과없이 용납하는 입장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WCC는 이를 다양성 속의 일치라 말한다.

한국교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WCC 창립총회 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을 파견하여 관계를 맺어왔으며 2013년 제 10회 총회를 부산에 유치하였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이미 지난 2010년 6월 29일(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회연합운동'에

해박한 국내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모시고 WCC '교회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의 기본적인 신학과 선교 방향에 관한 찬-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두 기구의 대화를 주도하므로 이들 서울 총회가 철저히 예수의 복음에 입각하여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 편집부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부장:신용식장모)의 찬양으로 드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등 세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성도, 피아니스트 김양연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교적 사진 촬영

10월 14일(주), 21일(주) 10:00~2:00까지 104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 10월 14일(주)과 21일(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4호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대상은 교적부에 사진이 없는 서리집사 이상이며, 기존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성도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이 힘든 성도들은 사진을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이메일(cyc@seoulchurch.or.kr)로 보내주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일(주) 제주도 방주교회 주일예배 1.2부에서 설교한다. 9일(화) 탈북자 복음반대 추진위를 소집한다. 11일(목) 한국군선교신학회 12회 심포지움에서 기초강연을 한다. 총회100주년기념대회 평가회의와 한장총산하 27개 장로교 총회 신임 총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다. 12일(금) 탈북난민캠프추진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13일(토) 장로교표준주석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박진아 목사, 9월 30일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수상: 오영숙 권사(12교구) 제 12회 한국교회 위상전에서 우수상
- 송재월 집사(그레이스 핸드벨과이어 지휘)10/7-12 2012 대만 핸드벨협회 워크샵 주강사로 출국
- 득녀: 14교구 유동훈 집사 윤지연 집사(12교구 유명종 집사 이형희 권사 장남 가정)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선교회(10.7) 베드로선교회(10.14)
- 금주의 식사: 최선열 집사 양금숙 집사 (아들 최성욱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2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2.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대상자(VIP)를 정하고 11월에 있는 VIP초대 새생명축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2012 성경암송대회

- 암송범위: 빌립보서 1-4장(전장)
- 예선-10.14(주) 교회학교 별
- 본선-10.19(금) 오후 7시, 602호

제 42회 학술공개세미나

WEA · WCC Dialogue

A New Horizon of World Christianity

- Convergence Between the Ecumenical and Evangelical Understandings of Unity and Mission -

강사

- 이종윤 박사 /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Thomas Schirrmacher 박사 / WEA 신학위원장
- Martin Robra 박사 / WCC 프로그램위원장
- 금주섭 박사 /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
- 김상복 박사 / WEA 실행위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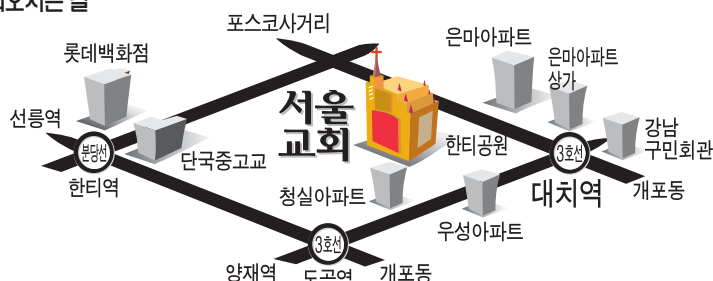
· 일시: 2012. 10. 22. 월 AM 10:00 ~ PM 6:00
· 장소: 서울교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0. TEL: (02) 558-1106

주최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a Christiana of Korea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